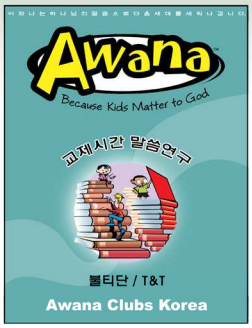
도와드릴까요?

■ 목적 :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알게 해준다.

■ 목표 : 이과의 결과
1.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고
2.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말했듯이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것이며
3. 각자가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한 주간으로 살게 될 것이다.

■ 자료 : 칠판, 분필,
– 등장인물 : 여행자, 강도(3 ~ 4명),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나귀(손과 무릎으로 기는 역할)
– 의 상 : 각 인물에 맞는 적당한 옷, 돈주머니, 큰 은전 두 개,



■ 말씀준비(2 ~ 3분)

어린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태수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조금 더 조심하는 건데.” 지난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축구시합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사고없이 공을 찼습니다. 몇 명이 공을 놓치고는 고의적으로 서로의 발을 차는 장난을 시작했습니다. 태수도 다른 사람의 발에 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넘어지면서 그만 발목을 삐고 말았습니다. 게임은 끝났지만 태수에게는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발목에서 기브스를 대고 목발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태수가 목발을 의지하여 학교에 갔을 때 학교에 있는 그의 친구들이 그 목발을 보더니 매우 신이나서 점심시간이 되자 목발을 가지고 장난치고 난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목발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친구들은 태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말리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 제발!” 하며 태수는 신음하였습니다. 마침내 점심 끝나는 종이 울려 다행이라 생각하고 목발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지” 하고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무리의 다른 친구들이 장난치면서 앞을 보지 않고 몰려오다가 태수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태수는 들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책들은 저쪽에, 목발은 다른 쪽에... 하나 남은 목발은 겨우 일어서려고 안간 힘을 쓰는 태수를 남겨 놓고, 장난을 치던 아이 중 하나가 “야, 태수야, 나중에 보자” 하며 사라져 버렸습니다.

■ 말씀연구(5 ~ 6분)

예수님은 종종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길 우리는 비유라고 부릅니다.

어느날 한 남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계명을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19:18후반)

이 남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 볼까요?

– 선한 사마리아인 –

이야기를 해주는 동안 어린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행하게 합니다. 먼저 여행자가교실을 천천히 가로질러 걸어가게 합니다. 앞에는 의자를 몇 개 진열해 놓고 강도들으 그 뒤에 숨어 있게 합니다.

해설자 : 어느날 한 여행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30km정도 밖에 안 되는 거리였지만 그 길은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도둑들이 길 곳곳에 잘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도들이 뛰어나와 여행자를 붙잡는다.>

해설자 : 갑자기 여행자의 앞에 강도들이 나타나 길을 막고 여행자를 붙잡는 것이었다.

<강도들은 여행자의 돈과 겉옷을 빼앗고 마구 때려 여행자는 거반 죽게 되어 마루바닥에 쓰러진다. 강도들은 한쪽으로 사라진다.>

해설자 : 강도들은 여행자의 돈과 옷을 빼앗고, 여행자를 마구 때려 쓰러뜨리고는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제사장이 등장한다. 걸어나오다가 잠시 멈추어 서서 쓰러져 있는 여행자를 얼핏 보게 한다.>

해설자 : 여행자가 강도 만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유대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는 여행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더니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이 빨리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가 버렸다. 쓰러져 있는 사람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었으니 자기의 깨끗한 의복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겠지. "자 누군가 또 지나가겠지. 그 사람들이 뭐 도와주겠지, 뭐" 하는 생각으로 제사장은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이 등장한다.>

해설자 :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은 레위인이었다. 길에 쓰러져 있는 여행자를 보고 그 사람 역시 그냥 지나가 버렸다.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타고 등장한다. 쓰러진 사람을 보고 나귀에서 내려선다.>

해설자 : 조금 후에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이 나귀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자 그 사마리아 사람은 나귀에서 내려섰다. 그는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의 상처가 심한 것을 보고 조심조심 씻겨 주고 상처를 싸매 주었다.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진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여관으로 향하여 간다.>

해설자 : 여행자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서 사마리아 사람은 나귀에 태워 근처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자를 여관에 들이도록 여행자를 나귀에서 내린다. 잠시 후에 여관 주인에게 가서 동전 두 닢을 주고 무엇인가를 주인에게 말하더니 떠나간다.>

해설자 : 그날 저녁 사마리아 사람은 그 여관으로 되돌아와 여행자가 여관에 잘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다음 날이 되자 주인에게 자신은 떠나야 하지만 자기가 없는 사이에 그 여행자를 잘 돌보아 달라고 은 닢 두 전을 지불했다. 경비가 더 필요할 때에는 되돌아 와서 얼마든지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 말씀해석(3 ~ 4분)

어린이 들과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이웃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이웃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 내내 사람들을 도와 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해 주시고 앉은뱅이는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들까지도 생명을 다시 주어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들로는 어느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흔히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와서 돕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연극을 통하여 유대 제사장이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하고 있지요? 누군가 도와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젠가 여러분 자신도 그런 도움을 받을 상황에 있게 될 것입니다.

■ 말씀 적용(1 ~ 2분)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이번 주간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보겠습니까?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주간에 그 사람을 도와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